

진주를 좋아한다

진주를 좋아한다. 10년이 넘게 쓰다 말다 하는 소설이 있는데, 글이 막힐 때마다 진주를 찾아간다. 그러다가 정이 들었다.

갈 때마다 비가 내린 덕분에 한적함을 마음껏 즐긴 진주성도 좋았고, 겨울처럼 잔잔하고 은은하게 달빛을 비추던 진양호도 좋았다. 비 내려도 좋고 날 맑아도 좋으니 진주는 내게 언제라도 좋은 도시다.

이번에는 태풍과 함께였다. 역대급이라고 했다. 나는 태풍을 잘 모르다가 지난해 제주에 머물면서 실감했다. 우산을 펼쳤더니 바로 부서졌다. 우산이 소용 없으니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었다.

태풍이 온다는데 도서관에 가도 괜찮을까? 그 물음은 흡사 위기가 닥쳤는데 책이나 읽고 있어도 괜찮을까?, 하는 질문처럼 들렸다.

아직은 날이 화창하고 하늘이 고요했던 일요일, 진주시립연암도서관을 찾아갔다. 남강 옆 언덕 위에 있는 도서관은 공원 같았다. 울창한 나무 아래 운동기구에서 노인들이 운동하는 동안, 엄마를 따라 나들이 온 아이는 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다.

도서관에 앉아 <무신예찬>이라는 책을 읽었다. 신 없는 세계를 받아들이는 지성인들의 글을 모은 책이었다. 거기서 '이제 나는 악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는다. 그것은 우리 세계의 한 가지 특징일 뿐이다.' 라는 문장을 읽었다. 해결되지 않는 악은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과 같은 것이다. 태풍 앞에서 절대자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기후에 대해 연구하는 편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악도 마찬가지로.

책을 읽다가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고, 두꺼운 책을 들여다보는 노인도 있었다. 도서관 한쪽에 카페가 있어 열람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다. 역대급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인류는 이 세계에서 무지와 폭력과 역병 등을 몰아내 왔다. 그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이성의 힘이다.

도서관은 그런 이성을 키우는 공간이다. 위기가 닥쳤을 때야말로 우리에게 책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튿날에는 진주성을 찾았다. 태풍이 임박한 듯 비가 내렸다. 그래서인지 관광객은 보이지 않고 휴관중인 박물관의 직원들만 분주했다. 우산을 들고 백일홍 앞에 한참 서 있었다. 태풍에 그 꽃잎이 다 떨어지면 여름도 끝나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물론 여름의 그림자는 꼬리가 길어 가을이 깊어질 때까지도 우리는 종종 땀을 흘리겠지만.

빗속을 걷다가 성 안에 카페가 있어 들어갔다. 북카페여서 서가에 꽂힌 책들의 아래마다 '진주성 카페' 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태풍은 잠시 잊어버리고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다. <가만히, 걷는다>라는 책이었다. 프랑스 작가의 산문들이 모여 있었다.

파리의 오렌지는 나무 밑에 떨어진 것을 주워온 열매처럼 슬퍼 보인다고 알퐁 도데는 썼고, 마르셀 프루스트는 나이가 든 뒤에도 산사 나무꽃을 보면 그 꽃을 처음으로 봤던 나이와 심장을 되찾는다고 썼다.

그리고 프랑수아즈 사강은 열여섯 살 때 혼자 남은 파리에서 만난 부랑자의 말을 옮겨놓았다.

원래는 그에게도 아내와 아이들과 좋은 차와 재산이 있었다. 그러다가 불현듯 자기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눈에는 그 흐

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렇게 살다가는 톱나바퀴 같은 것에 물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죽어가리라는 것도.

그는 종일 자신이 하는 일이 '사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건 시간이 흐르고 날이 저무는 걸 보는 일, 자기 손목에서 피가 팔딱팔딱 뛰는 소리를 듣는 일, 산책하고 강을 보고 하늘을 볼 뿐,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일이다.

내게는 무엇이 '사는 법' 일까?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식당과 술집이 아홉 시면 모두 문을 닫아야만 했을 때였다. 어떤 풍경일까 궁금해 나가본 적이 있다. 밤새도록 가게마다 손님들로 가득했던 광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불 꺼진 변화기는 이미 찾아온 미래처럼 내게 다가왔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나는 어떤 삶을 원하게 됐다. 좋아하는 일을 더 자주, 더 많이 하는 삶, 돋보기로 모은 햇빛처럼 초점이 또렷한 삶이다. 누가 뭐라든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싶다. 뒤쳐지는 것 같겠지만 좋아하는 일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제일 앞서가는 일이다.

내게는 독서와 글쓰기가 바로 그런 일, 나의 '사는 법'이다.

사강의 글까지 읽고 다시 비 내리는 진주성으로 나왔다. 진주성에 갈 때마다 나는 두 가지 기록을 떠올린다. 하나는 <선조실록>에 실린 한 줄의 문장이다.

'적이 본성(本城)을 무찔러 평지(平地)를 만들었는데 성 안에 죽은 자가 6만여 인이었다.'

다른 하나는 진주박물관에 전시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언이다.

'이슬로 와서 이슬로 사라지는 몸이며, 오사카의 화려했던 일도 꿈속의 꿈이런가.'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진주성에서 패한 뒤,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재차 공격을 명했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다. 그가 독서를 즐기고 이성애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유언으로 남겼을까? 이성적으로 행동했다면 그는 최소한 6만 명의 목숨을 구하는 영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망상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꿈속의 꼭두각시로 죽어버렸다. 그는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사는 법' 일까?

일제강점기에 진주성에는 일본 신사가 있었다고 한다. 해방되고 전쟁이 끝난 뒤, 신생국가 한국은 폐허였다. 바로 그때 신사가 있던 자리에 도서관이 들어섰다. 연암도서관은 본래 진주성 안, 지금의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자리에 있었다.

진주성을 걸어나오며 나는 거기에 도서관을 지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전쟁이 끝난 뒤, 패배주의와 미몽에 사로잡혀 팔자나 운명에, 혹은 절대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책을 읽도록 한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과 문화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그러니 "태풍이 온다는데 도서관에 가도 괜찮을까?"라고 묻는다면, "태풍이 온다니 더욱 더 도서관에 가야 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김연수@진주문고, 22년 12월 3일 토요일)

* 백예린 - 산책